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4. 12. 23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2/16~12/20)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미 제조업 부진에 달러 약세 나타났으나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지속에 환율은 추가 상승
- 중반, FOMC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하락 전환
- 후반, 연준의 점도표 수정 등 예상보다 매파적인 FOMC 결과를 반영한 글로벌 달러 강세에 장중 1,453.0원까지 고점을 높임. 이어 주 후반, 예상을 웃돈 미 GDP에 강달러 지속되었으나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노력 속 추가 상승은 제한되며 1,451.4원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31.0	1,453.0	1,428.0	1,451.4	+20.4

달러/원 전망

- 11월 미국 PCE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며 시장 예상을 0.1%p 하회한 영향이 달러 강세를 다소 누그러뜨릴 것으로 예상. 여기에 연준 당국자들의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평가 역시 달러 강세 흐름을 일부 되돌림시킬 것으로 보임
- 또한, 환율 고점 인식에 따른 연말 수출 달러 매도 가능성 등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판단되나, 최근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도 우위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정국불안에 따른 대외신인도 회복 여부 등이 외환 수급에 다소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

예상거래범위
1,435원 ~ 1,449원



엔·유로화 동향 (12/16~12/20)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서비스업 경기 개선 소식과 점진적인 정책 기조를 강조한 슈나벨 ECB 집행이사의 발언에 유로화는 강세 출발. 이어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
- 중반,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하에 ECB 통화정책과의 차별화가 부각된 영향으로 유로화 가치가 급락
- 후반, 독일 소비자신뢰지수가 소폭 개선되며 예상치를 상회한 측면이 유로화의 지지력으로 작용하며 강보합. 이어 주 후반, 미 PCE 둔화로 안도감이 유입된 가운데 독일 PPI가 예상과 달리 반등한 영향에 1.04 달러선으로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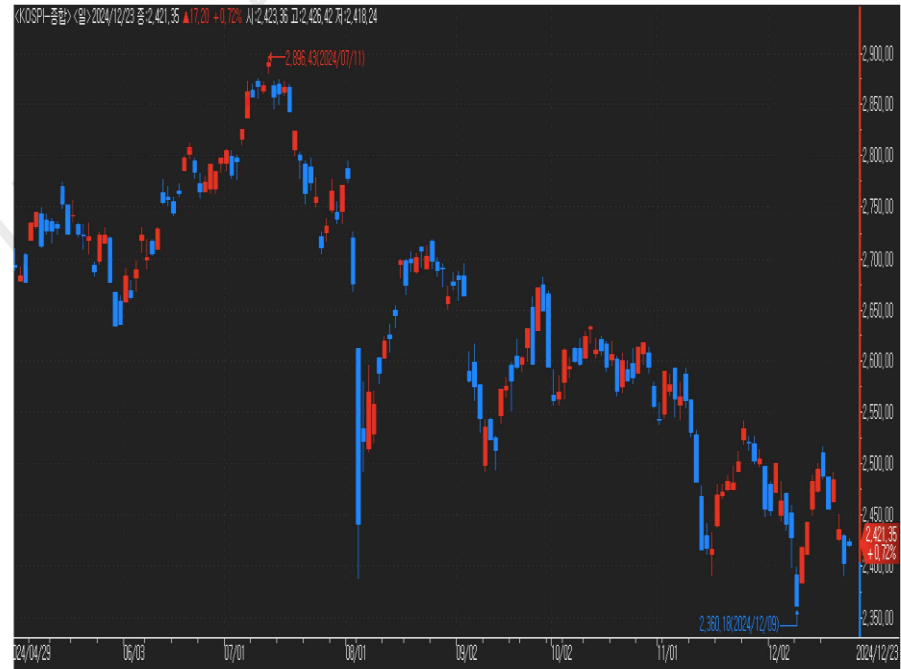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BOJ가 이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는 가운데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12월 금정위를 앞두고 시장 내 경계심이 확산되면서 가치가 반등
- 중반,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중단 가능성 시사에 미-일 금리차가 확대된 영향으로 약세
- 후반, BOJ의 금리동결과 긴축 시기 언급 부재에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며 큰 폭의 약세를 시현. 이어 주 후반, 일 재무상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약세폭을 일부 되돌리며 156엔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497	1.0534	1.0343	1.0429	-0.0068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3.7	157.9	153.2	156.4	+2.7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16~12/20)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전주 후반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커졌다는 심리가 시장을 견인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3년 국채선물 대규모 매도세 속에 시장은 추경 등 예상 관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 지속에 영향
- 중반 들어, 미 12월 FOMC에 대한 경계감 속에 한은 총재의 내년도 물가 설명회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높아짐을 인식한 비둘기 스탠스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12월 FOMC의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영향과 이에 반응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 등으로 재차 상승 전환 후, 주 후반, 장중 특이 이슈 부재한 가운데 미 국채금리 상승 흐름에 연동된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연속적 순매도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이어지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탄핵 국면 이전 수준으로 코스피지수가 회복함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전일 뉴욕증시 기술주 혼조 속에 S&P 발표 PMI 지표의 부진 등이 투자심리를 약화시키며 큰 폭 하락 추세
- 중반 들어,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확대 이후 낙폭 과대 인식 등에 따른 순매수 전환 등으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12월 FOMC 매파적 결정 등,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 여파 등에 따라 2% 가까이 코스피 큰 폭 하락. 이어 주 후반 PCE 물가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한 가운데 고환율 지속 및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과 미 연방정부 섣다운 위기 고조 등으로 하락 마감